

시인 김지하의 문학과 생명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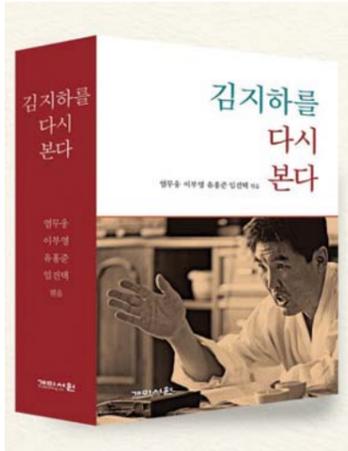
김지하시인추모문화재단추진위, '김지하를 다시 본다' 출간

김지하시인추모문화재단추진위원회가 '김지하를 다시 본다'를 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지하를 다시 본다'는 2023년 5월 6일~7일 김지하 추모 1주기에 열린 '김지하 추모 학술 심포지엄' 토론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꼭 읽어야 할 김지하의 글을 모아 만든 105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1부에는 염무웅, 이부영, 유홍준, 임진택, 임동환, 김사인, 홍용희, 정지창, 채희완, 심광현 등 30여 명이 '김지하의 문학·예술과 생명사상'이라는 큰 주제 아래 '김지하의 문학과 예술, 미학', '김지하의 그림과 글씨', '민주화운동과 김지하',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한 후 정리한 내용과 종합토론을 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2부에는 '김지하가 남긴 글과 생각-생명의 길·개벽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김지하가 남긴 수많은 글 중에서 꼭 다시 읽어봐야 할 글을 골라 실었다.

암울한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를 위로하고 힘주었던 글 '양심선언', '나는 무죄이다', 로터스상 수상 연설인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등 현대의 문제점들을 수십 년 앞서서 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개벽과 생명운동', 김지하가 자신의 문학에



대해 쓴 '깊이 잠든 이끼의 샘', 김지하가 남긴 생명사상을 살필 수 있는 '생명평화선언', '화염개벽의 모심' 등 진지하게 김지하를 다시 보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원고를 모았다.

김지하 시인은 50년 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이는 1974년 11월 18일 한국작가회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회가 결

성된 직접적인 계기가 됨),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수호 투쟁 속에 연재된 글 '고행... 1974'가 문제가 돼 다시 감옥에 갇혀야 했던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2022년 김지하 시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져 있었고, 그를 아는 사람 중에도 그의 '획절'에 대한 불쾌한 감정으로 그 이름을 기억에서 떨쳐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970년대 이후 탁월한 문학적·예술적·미학적 성취를 이루었고, 백척간두의 정치투쟁에 치열하게 임했다. 또한 누구보다도 앞서 생명운동을 주창한 생명사상가였다. 이런 김지하는 결코 폄훼돼서도 안 되고 잊혀서도 안 될 인물이라는 생각에 시인과 가까이 지내던 동료와 후배들이 뜻을 모아 이 책 '김지하를 다시 본다'를 출간하게 됐다.

김지하 시인은 이미 40여 년 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반 상황들, 즉 생명 경시와 환경 파괴, 기후 위기와 전염병의 창궐, 핵전쟁 위기를 예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명사상이란 화두를 높이 든 생명사상가이자 생명운동가였다.

이런 김지하가 누구였는지 세상에 다시 간곡히 알려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의 생명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 전환의 길에 나서게 하는 데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만호 기자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기획전시

전주한벽문화관, '꿈의 순환'展' 내년 2월 28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은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기획전시 '꿈의 순환'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작품의 시각적 관람뿐 아니라, 전시를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석동미, 박스피넷(박세진), 박준석 작가는 총 3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각각의 작품들은 미디어, 평면, 조형, 설치작품 등의 장르로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먼저, 석동미 작가는, 부메랑이라는 매체에 추억과 꿈, 과거와 미래,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담았다. 삼반된 두 단어들은 결코 서로가 만날 수 없지만 과거에 던져진 부메랑이 한껏 날아올라 반짝이는 별빛을 담아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보여준다.

이어 박스피넷(박세진) 작가는 자신만의 캐릭터 '박스피넷'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기억을 담아내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고민을 담고, 그 조각 속 생명을 불어넣는 공존 예술을 보여준다. 미디어(TV, 모니터, 핸드폰 등)를 상징하는 박스형 몸과 카메라 렌즈를 뜻하는 평평형 눈을 가진 작품 속 주인공이자 작품 그 자체를 통해 작가의 꿈을 전시한다.

끝으로 박준석 작가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평범한 사물들을 소재로 표현하며, 현대사회에 민연한 소비주의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사물의 형태를 다양한 면들로 쪼개어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에 다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재현하고 미래의 꿈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작가가 직접 제작한 키트를 활용해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진행, 실제 작품에 사용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입장은 무료며,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 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역 예술 생태계 지속가능 발전 도모

부안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통합성과전 '하이라이트' 내일부터 개최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오는 19일부터 석정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통합성과전을 개최한다.

이번 통합성과전은 재단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24 부안 예술인/단체 역량강화 하이라이트(이하 하이라이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라이트는 그동안 재능은 있지만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안' 예술인들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단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구, 예술콘텐츠(신규 레퍼토리 등)개발, 워크숍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전시는 본 사업에 선정된 8명의 개인

예술인 △전정권 △이만수 △순수원 △오현영 △안미정 △정은숙 △유종희 △송민주와 △단미희 △비움문화예술 △슬바람소리 문화회 등 3개의 예술단체가 함께 하는 통합전으로, 각 예술인(단체)은 자신이 겪어온 창작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 등을 다룬 인터뷰 영상이 전시 공간에서 상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개전식은 오는 19일 석정문화관 기획전시실(1F)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지역의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가능하다.

전시기간은 19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https://www.b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2024 전주제야축제

일시 | 2024. 12. 31.(화) 20:00~ 장소 | 노송광장(전주시청 앞)

전북여성새일센터, 여가부 평가서 2년 연속 'A등급'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89% 달성 등 성과

전북여성새일센터(원장 전정희)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평가에서 2년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새일센터 사업운영 평가는 전국 여성새일센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사업결과를 △취·창업지원(취·창업 실적, 고용안정성), △서비스제공(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센터 운영(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고객만족도, 종사자 관리), △가점(센터특화사업운영)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전국 158개 중 상위 10% 센터를 A등급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새일센터는 2023년도에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 1,400명에게 취업의 꿈을 실현해 주고, 새일여성인턴 89명과 2

개 기업에 기업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다. 더불어 52개 여성친화일촌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5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해 100명이 수료했으며, 취업률 89%를 달성하는 등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정희 원장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증대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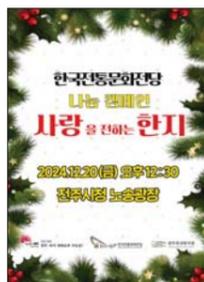
이어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인사담당자 교류회 등을 개최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전당, 20일 '사랑을 전하는 한지 나눔' 캠페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0일 오후 12시 30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랑을 전하는 한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눔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17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천년한지관 직원들은 이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한지를 만든 공예품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한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연말을 맞아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진행된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시민들과 전통문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한지팀(063-281-1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